

16/07/31(주) 주일예배 / 제목 :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계 1:1~3) p. 399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본론 /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1.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계시[啓示]란 영어로 revelation [rɪˈvɛləʃən]으로서 헬라어는 αποκαλυψις[apokalupsis; 아포칼롭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떨어져 나온, 때 어낸'을 뜻하는 접두어 απο[apo; 아포]와 '덮다'라는 뜻의 어간 καλυπτω[kalupto; 칼롭토]가 합성된 여성 명사형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어원으로 본 계시는 베일에 덮여서 가려져 있는 어떤 것을 베일을 벗겨 드러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어 보이는 것'으로서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서 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계시'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책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책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계시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 1.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입니다.
- 2.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될 일을 보이며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 계시는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1절 말씀 하반부를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구절을 보면 그 미래에 될 일이 어떻게 요한에게 전달되었는지 그 경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먼저 이 요한의 증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천사를 보내

어 요한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장래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지시하시고,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낸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세상 끝 날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대한 예언이 다른 곳에는 간헐적으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계시록은 소상히 기록된 것이 특징입니다. 계시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환난과 교회의 승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은 내용상 교회가 특별히 말세에 큰 환난을 받으나 주께서 재림하시므로 교회는 결국 승리함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이라는 특이한 성경을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박한 위기 상황을 믿음으로 가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리고 깨어 경성하게 하므로 미래를 대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을 알려 주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리를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은 롯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24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찌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찌어다/ 이 날 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뱀 자들과 짓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주님은 언젠가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둘러싸이게 되면 산 위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주후 70년에 타이투스(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예루살렘이 철저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인류 종말의 때에 관한 예언으로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때 흥미로운 사실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 살해되었지만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 말씀을 듣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싸이는 것을 보고 산으로 피난해서 가족과 함께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큰 재난이 있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왜 경고하십니까? 듣고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더욱 깨어 경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세월에 수 차례 있었던 잘못된 재림 예언과 종말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즉 동화책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니 나중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도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모습이 종말의 문제에도 나타나서 종말 신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종말에 관해 시기를 못 박으면서 자꾸 거짓말을 할 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사단의 장난입니다.

다.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몇 번이나 "언제 주님 재림하신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풍파를 일으켜 놓고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진짜 종말을 우습게 안다는 사실을 알고, 사단은 미리 하수인을 통해 양치기 소년과 같은 거짓 시한부 종말론을 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말에는 너무 들썩들썩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말 신앙 자체에 문을 닫아 버려서는 안됩니다.

성경을 죽 살펴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보편적인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 원리란 "경고를 받고 사람들이 들썩들썩 할 때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경고를 우습게 아는 것이 보편화되었을 때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심판에 대한 경고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종말에 대해 겁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20년 전, 10년 전과 달리 종말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종말을 우습게 아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상황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때가 더욱 깨어 경성해야 하는 때임을 성경에 나오는 심판 사건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유대인들의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마 23:37-39). 그 유대인들의 회개의 전제 조건은 유대인들의 고토 귀환입니다. 이사야 43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그 말씀대로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고, 현재도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리아(그 땅으로 올라가라) 운동'이라고 하는데 동방의 중국, 인도, 이라크 등지에서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많이 귀환했고, 지금도 귀환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독일, 폴란드, 체코 등지에서 무수히 귀환했고, 지금도 귀환하고 있습니다.

북방의 소련에서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억압 생활에서 놓여 귀환했고, 남방의 아프리카에서 떠돌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귀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환을 꺼리는 사람이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미국의 엄청난 부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 풍족한 삶을 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때가 되면 귀환할 것입니다.

이처럼 알리아 운동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환경이 서서히 무르익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을 대비하며 사는 자와 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깨어 경성하는 자세입니다. 이번 요한계시록 전체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거룩한 종말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입니다.
2.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될 일을 보이며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책입니다.

3.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책입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모두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이거나 다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복 있는 자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까?

첫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다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 오늘 본문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특히 천국의 소망이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뚜렷한 천국 소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천국 소망이 뚜렷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교회 생활에도 활기가 생기고,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낙낙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고난 중에서도 삶에 용기가 생기게 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끝이 있구나!"하는 것을 인식하고 삽니다. 건강해도 병들 날이 있음을 인식하고, 성공해도 실패할 날을 인식하고, 부할 때에도 가난하게 될 때를 인식하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면 옛날에 좋았던 세상적인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재산증식을 중시했는데, 이제는 천국의 상급을 더 중시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면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진지하고, 건강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기력하고 영적인 힘이 없습니까? 그것은 종말의식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살 장소인 것처럼 여기고 너무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집념을 가지니까 영적인 힘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있게 주님을 믿었던 이유는 종말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한결같이 종말신앙이 투철했을 때였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영적으로 가장 풍성하게 될 때는 종말의식이 투철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종말의식이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더욱 살아갈 힘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더욱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살아갈 놀라운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 길선주 목사님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많이 읽기로 유명하신데 특히 요한계시록은 만 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면 안쓰럽게 생각하거나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길선주 목사님께서 어떻게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던 것이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묵상하여 천국 소망이 깊어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귀로 듣는 것도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진정으로 복된 성도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고개를 가우뚱하거나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한 번 이 장면들을 진지하게 스스로 그려보기도 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세를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말씀을 보고들을 때 항상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여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그 어떤 방법보다 은혜를 받는 방법이 바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설교자는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하지만, 성도들도 말씀을 받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도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성도들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복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각종 계시와 상징과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면 더욱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상식과 이해와 경험의 범위를 초월하여 들릴지라도 바로 그러한 때에 더욱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으로 알고 항상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세를 대단히 기뻐하시고 은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셋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본 각종 상징과 장면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하지만 곳곳에 하나님의 명령과 권면과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눈과 귀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입술과 손과 발로 전달되어 실천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은총과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내 입술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고, 내 발걸음은 증거자의 발걸음이 되고, 내 손길은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코 두려움을 주고 공포에 떨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줌으로 미래를 대비하게끔 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처럼 신뢰를 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계시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잘 알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축복의 책인 계시록을 정독하시어 복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핵심 : 계시록을 읽음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됩시다.

요약정리 /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1.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입니다.
2.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될 일을 보이며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책입니다.
3.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책입니다.